

마음먹기 따라서 하나님 되거나 마귀 된다

마귀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생각을 하면 마귀가 되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되고 마귀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밀실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의 생각을 그때그때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만 갖도록 조종을 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시간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만 갖도록 해야 되는 고로 초초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초초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해라." 그러므로 초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바라보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것도 사망의 신을 바라보고 생활을 하는 까닭에 죽는 것입니다. 영생을 하려면 영생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고로 영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초창기부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의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살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영생의 확신"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람 몸에서 빛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 빛이 강하게 나오고 마귀의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런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먹는 대로 마음의 물질이 사람 몸

에서 발산되어 나오고 있는 고로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 몸에서 물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하는 사람 곁에 가면 마귀의 영에게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말을 하는 사람과 단 일 초라도 같이 서 있어도 안 되고, 마귀의 말을 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듣는 순간 마귀가 되는 고로 마귀의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간직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은혜를 간직하려면 마귀 말을 하는 사람은 아예 상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간직하려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야

그러므로 시간 시간이 하나님에게 충성된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보람이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늘 가지면 은혜가 받아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된 마음,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이라면 생명을 바쳐 가며 열심히 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초초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은혜가 간직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영생의 확신"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요, 희생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은혜가 간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가 간직 되는 비결은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만나면



이기는 비결을 논하시는 구세주 조희성님

은혜 얘기는 안 하고 세상 얘기만 떠들어대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제 항상 은혜 받는 얘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친구를 사귀면 자기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방법은 마귀 친구를 사귀면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은혜를 받고 되는 것입니다.

반대 생활이 곧 이기는 생활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논하지만 맨 먼저 구세주가 나온 다음에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가 되고, 제일 먼저 정도령이 나와야 이 세상 사람이 다 정도령이 되는 것이요, 제일 먼저 생미륵불이 나와야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생미륵불이 되는 것입니다. 생미륵불이 되어야 영생이 되고 모든 중생들을 살리는 생미륵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미륵불이 되고 정도령이 되고 구세주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고 또 한 사람 전도를 하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은혜를 받고 되는 것입니다. 오열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하면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고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면서 호흡을 멈추고 은혜가 연결될 때까지 울부짖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투쟁에서 이기는 생활을 거듭한 고로 억만 마귀가 와도 억만 마귀가 공격을 해도 문제없이 이기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결과 같이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울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리막

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가 하면 또 올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굴곡의 생활에서 이기는 생활을 하면, 이기는 생활을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제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하나님에게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충성을 해야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한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논하지 못한, 석가모니가 논하지 못한, 예수의 제자들이 논하지 못한 구원론과 구세주론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다."라는 말은 6000년 동안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이면서 성경적이면서 과학적인 논리를 듣고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한심한 인생인 것입니다.

의심하면 구원권에서 멀어져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의심을 하면 10년 동안 그 은혜를 회복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의심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낙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 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이제 죽을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구원 얻을 사람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을죄를 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보는 순간 마귀가 죽고, 바라보는 순간 죄가 녹는 듯이 녹는다고 했는데 의심하는 죄만은 안 녹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는 이긴자를 바라보는 순간 1초 전에 죽을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죽을죄가 하얗게 깨끗하게 흠과 티가 없이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의심하는 죄라는 건 죽을죄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심을 자꾸 하면 구세주가 되는 이긴자도 찾아 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 씻어줘도 계속 의심을 하면 이제 이긴자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힘이 들면 계속해서 의심하는 그런 인간의 죄를 이제 담당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 하는 것을 조심하고, 의심하지 마라." 그러하면 그 두 가지만 지켜도 구원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요건 중 하나는 입에 재갈을 무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인이 되기까지 바로 제일로 의인되는 그러한 요건 중에 하나가 입에다 재갈을 물었던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말이라면 일체 한 마귀도 입에 담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뻐하는 것만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 것만 언제 한번 말로 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하나님

을 섭섭하게 하는 말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에게 대해서 누가 되는 말은 한 마디라도 해 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잘못 놀리면 그 입을 잘못 놀린 것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입을 잘못 놀리면 지옥 간다."하는 말을 듣고도 또 입을 잘못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구원이 없지만은 입을 잘못 놀리면 지옥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지금까지 입을 잘못 놀린 죄를 다 씻어 준 것입니다. 입을 잘못 놀리고 의심한 죄를 다 해결해 주고 그 말을 하는 거지 그 말을 하면서 사해 주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서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말을 해서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두 번 쯤 생각을 해 보고 말을 했지 터진 입이라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는 상당히 말이 빨랐고,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그러한 습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고 말을 하게 되니까 말을 천천히 하는 버릇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조심하고 그 마음으로 항상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아무리 숨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 배 이상 하나님이 갚아 주고, 그 사람에게 배 이상의 은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1991년 8월 20일 말씀 중에서

정리 / 원현욱 기자

철학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물질과 일들의 진리(眞理)를 밝혀 행복추구의 올바른 길과 방향을 밝히는 것이다.

현존의 철학은 행복추구의 올바른 길과 방향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가?

역사는 말하고 있다. 언제나 진리를 밝혀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간의 정도(正道)를 따라 사는 철학자다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야합(野合)하여 크고 넓은 사도(邪道)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왔다 갔어도 여전히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혹여 철학자들은 이 세계를 한 줄에 꿰어 설명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통일된 법칙과 가치관을 머리로서만 탐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 진리는 무성할 가설 속에 더욱 그 실체가 희미해진 것이라. 그래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묻혀 해매고 있고, 이것이 현대문명이 도달한 막다른 혼돈과 질곡의 정체라 말하고 싶다.

철학적 행위는 우리 본성의 피(의식)의 부르짖음을 대단히 왜곡 변질시키고 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양 그의 아름다운 언변과 유려한 글로 무지한 사람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환상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철학이 집단화되면, 획일적 일방통행의 길로 빠뜨리는 무슨 주의(主義)나 이념(理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갈기갈기 찢어진 분파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게 된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에는 저 광폭한 정복자들이 '제국주의'란 것이 세계를 피로 물들였다.

그러더니 이내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일어나서, 급기야 자독된 독재인 '스탈린주의'로 변질되어 유럽대륙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또 세계 제2차 대전의 뇌관을 터뜨린 '파시즘'의 광기는 어떠한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 3국은 자국 국민들을 일종의 종교적인 광신과 군대식 규율을 결합한 전체주의적인 인간형으로 변종시키고, 끝내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전장으로 국민들을 몰아넣었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세계질서를 재편성하겠다는 그들의 눈먼 야욕이 문명의 황폐화와 인간 도살의 광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역사를 통해서 주이나 이념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 흥분한 늑대의 광기적(狂氣的) 살육놀음으로 끝나고 말았다. 물론 철학의 긍정적인 기능이 사회 곳곳에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기에 세계는 이 정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잘못된 철학의 사상적 광기가 인간의 피의 본성(영생의 본성)의 부르짖음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

죽음을 미화하고 정당화하고 그것을 예찬하는 것을 볼 때에, 철학적 행위인 영생추구의 본성에 대한 뒤틀림 현상이 지나친 것을 넘어 만악(萬惡)의 악이 되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 본성인 영생추구의 뒤틀림 현상



어가고 있는 것에 공포스럽다.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으름 되는 가르침을 의미한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절대적 신에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존재의미다.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다 해결해 낼 수 없는 인간한계상황을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함이다. 그리하여 신을 믿고 도움 받아서 가정의 평안과 자신의 건강과 형통함을 기원하고, 또 죽음문제를 어떠한 모양으로든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바로왕이 거대한 피라미트를 쌓아 올려 개체적 자아가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집착한 욕구는 바로 영생의 속성이 뒤틀려서 나온 것이며, 우

리 한민족의 곳곳의 큰 무덤들이나, 또 그 무덤의 주인공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생매장하는 순장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기독교에서 면죄부를 돈으로 사든지, 수양이나 돼지 등 짐승을 잡아 제단에 바친다든지, 아니면 많은 돈을 교회에 바침으로써 하나님에게 그 댓가로 많은 복을 바라는 것은 행복의 의지가 종교라는 힘을 의지해서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의식(의)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영생의 소망이 뒤틀려져 밖으로 투사된 것들이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종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숭배하고 있는 자신들의 구세주는 본래의 모습과는 많이 왜곡되어 있다. 세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 석가, 알라, 공자 등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지배계급의 권력과 각 종파의 추종자들이 결탁하여 일반 민중들을 지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전용되어 온 부분도 상당하다.

20세기 생(生)철학의 대표적 철학자 니체는 이러한 종교와 신을 믿는 행태를 보고 '신은 죽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은 죽고 없으니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의 길을 가라고 하였다. 당시의 막강한 교권 아래서 왜 그런 위험하고 무모한 사상을 펼쳤을까? 그에 따르면 유대교나 기독교도 둘 다 허무주의적이다. 현세에 적극적이지 않고 내세와 절대자에게만 큰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본래 종교는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고, 그 심성을 강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사람을 해치고, 이 세계 내의 삶을 더욱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종교의 뒤틀림 현상

인류 역사 이래의 전쟁 중 50% 이상이 자비로운 신을 믿고 있다는 종교인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중세의 십자군전쟁이나 현대의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립 등 몇 가지만 보더라도 종교의 타락은 명백하다. 세계의 유수한 종파의 기존 종교인들이 믿고 있

는 구세주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형상)에 불과하다. 어찌보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환상을 숭상하고 있는 것이지 본래 신의 모습을 숭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환상적인 교리만을 믿고 자신의 깨달음과 실천 없이 우상영여리를 떠받들고 있는 종교인들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고와 행동들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기성 종교인들은 성인들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참다운 인간성, 도덕성, 생명성, 사랑, 희생, 자유, 평화 등의 실천의 추구의 의지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든 환상과 환영 속에서 갇혀 있다. 신과 인간을 철저히 분리 분열하여 보며, 그것을 결코 하나로 볼 수 없는 맹신을 낳는다.

본래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유대교의 신비주의 측면인 카발라, 기독교의 영지주의, 이슬람의 신비주의 측면인 수피즘을 비롯해 거의 전세계 종교의 감춰진 진실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거듭남과 신과의 합일 내지는 내면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절대적 교리로 채택하고 있음을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종교적행위의 뒤틀림현상은 오히려 비종교인의 눈으로 더 정확히 보고 기성종교와 신앙인을 우려하는 형국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과학, 철학, 종교의 행위가 대단히 뒤틀리고 왜곡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대략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류가 간절히 원하는 행복에의 피의 부르짖음(본향에 대한 향수)을 어떻게 탈출 수 있을까?*

김주호 기자